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 경 자[†]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Effects of Perceptual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Clothing Behaviors

Kyung-ja So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9년 4월 30일), 수정일(2009년 7월 3일), 게재확정일(2009년 7월 29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t relations in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perceptual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sampling method was a convenient sampling of 190 male and 160 female students in Daeje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July 2008. The instruments consisted of perceptual body image (Silhouette Task),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need for plastic surgery and appearance management in ordinary times) and clothing behavior (interest in clothing and fashion, along with conformity and exhibi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requency analysis,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t-test, and variance analysis. The subjects with normal body size perceptions had a strong need for plastic surgery, revealed mor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had a high interest in clothing. The subjec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body appearance showed high conformity to clothing. The subjec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too fat body had high needs for plastic surgery and the subjects dissatisfied with a too thin body type did less appearance management in ordinary times. The subjects who had a high need for plastic surgery performed more appearance management, had a high interest in clothing and fashion, showed a high conformity to clothing, and exhibited a high exhibition of clothing. The subjects who had more appearance management in ordinary times had a high interest in clothing and fashion and showed a high conformity and exhibition of clothing.

Key words: Perceptual body imag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Needs for plastic surgery, Clothing behaviors;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 미용성형욕구, 의복행동

I. 서 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인 미의 기준 또한 다른 사회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속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변화하는 미의 기준에 적응하고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지각하고 미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인식하게 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연출과 같은 소극적인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연구와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는 패션 관

[†]Corresponding author
E-mail: kjsong900@hanmail.net

런 학문과 미용 패션 업계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영록(young look)의 유행과 신체노출이 많은 의복의 유행은 신체적 외양에 대한 무언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신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키 크고 마른 체형이면서도 볼륨감이 있는 체형을 선호하게 하며, 교육용 삽화에서조차 여성은 점점 날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Davis & Oswalt, 1992).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최근 신체이미지에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신체이미지 연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태도뿐만 아니라 실제 체형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에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송경자, 2003), 본 연구에서는 지각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욱이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잘생긴 외모가 취업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기영 외(2005)의 연구결과는 현대 젊은이들의 외모중시 풍조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외모는 매력적인 자기표현의 차원을 넘어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능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히 직장인들의 외모관리는 특별한 모임이나 만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홍병숙 외, 2007). 이러한 신체, 외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경제 성장, 의학기술 발달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원창훈 외(2004)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93%)의 응답자가 내적인 면 못지않게 외모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미용성형수술은 필요한 수술이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최근 미용성형수술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정상인들이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에 나타난 외모관리행동은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미용성형수술, 화장, 피부관리, 헤어관리 등으로 구분되었으므로(김선희, 2003),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 외모관리와 적극적인 외모관리인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외모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남자 대학생들의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각적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을 알아보고,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의 차이와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인간의 자아는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적 자아의 지각을 신체이미지라고 부른다.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우리들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고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행동을 하게 된다. 신체이미지의 변화는 다차원적이고, 신체이미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신체매력에 대한 기준이 있다. 신체이미지의 영향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여성이 좀 더 민감하고, 의복, 화장, 악세서리 등으로 인상관리를 하여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신체이미지는 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의 신체결점을 가리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Cash, 1990). 하주연 외(2005)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을수록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독특한 의복차림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타인의 눈을 의식해 그들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욕구가 긍정적일수록 유행에 대해 민감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는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자, 김재숙(200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거나 정상체형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의복과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경란, 이명희(2003)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낮을수

록 미용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자(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고 의복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에 관심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조운주, 이정란(2004)의 연구결과 자신의 체형 중 키와 다리길이가 길다고 인식할수록 의복의 무늬, 질감, 디자인 및 스타일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위해 하는 전반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중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과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포함한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기준을 주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인지하게 되며, 이상적인 신체 및 외모에 대한 기준을 알게 되면 그 기준에 도달하고자 체중 조절, 화장, 머리카락, 피부관리, 유행의복의 착용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와 함께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더 쉽고 더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미용성형수술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볼 수 있는 미용성형 관련 연구들과 함께 평소 자주 하게 되는 일상적 외모관리 관련 연구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장충현 외(2005)의 미용성형외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수술경험이 1992년에 비해 200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인지도 역시 15% 이상 크게 증가되었고 같은 기간 내 남자 대학생들의 인지도는 25% 이상 증가해 최근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남자 역시 외적인 면이 중시되는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원장훈 외(2004)의 연구에서 미용성형수술의 목적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해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기 만족도의 상승,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의 상승효과 등으로 나타났으며, 희망부위는 남성의 경우 피부, 눈, 비만 등의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피부, 코, 눈, 안면윤곽, 비만, 흉터제거, 유방수술 등의 순이

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외모관리행동은 체중조절행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저체중이거나 정상이었음에도 체중은 더 적게, 키는 더 크게 되기를 희망해 더욱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김선희, 2003; Jacobi & Cash, 1994). 미용성형수술 후 대인관계에서는 자신감의 증가로 회피 및 긴장이 감소하고, 재미있거나 즐겁고 우호적이며 희망적인 느낌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배재영 외, 2004),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체이미지 역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지경환, 이상익, 2001; 하정희, 송영선, 2005). 송경자, 김재숙(200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너비를 실제 크기보다 크게 지각한 사람은 미용성형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과 신체매력에 관심이 높을수록 미용성형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윤정(2007)의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결과 의복에서 유행성을 추구할수록 또 동조행동을 많이 하거나 개성을 추구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적인 남성보다 오히려 자신을 남성적이라고 여기는 남성들이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경 외(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외모와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였으며, 성적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미실, 이금실(2007)의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일수록, 또한 본인의 미용성형수술사실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을수록 의복의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소 눈에 띄더라도 연예인의 옷차림 또는 비싸고 특이한 명품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을 알아보고 지각적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행동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의복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의 성별차이를 알아본다.

2. 용어의 작업정의

1) 지각적 신체이미지

실제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알고 있는 크기나 형태를 의미한다.

2) 외모관리행동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위해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1) 미용성형욕구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불만족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성형수술하고 싶은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2) 일상적 외모관리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위해 일상생활 중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머리손질, 면도, 화장품 사용 등의 외

모관리를 의미한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 대학생으로, 피험자는 대전 지역 소재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강생 중 편의 표집하였으며, 연령은 20세~26세, 성별분포는 남자 190명, 여자 16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2008년 6월 20일~7월 15일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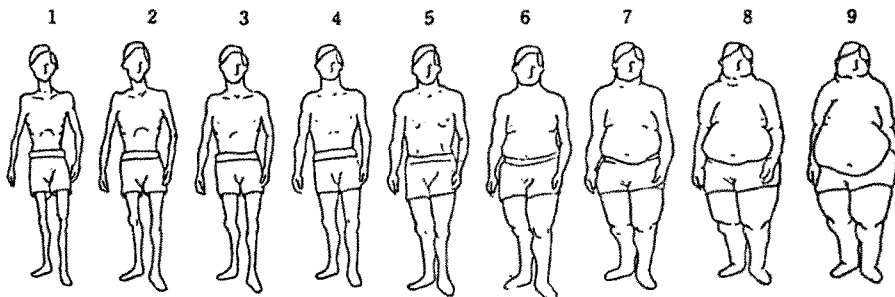
4. 측정도구의 구성

1)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도구(Silhouette Ta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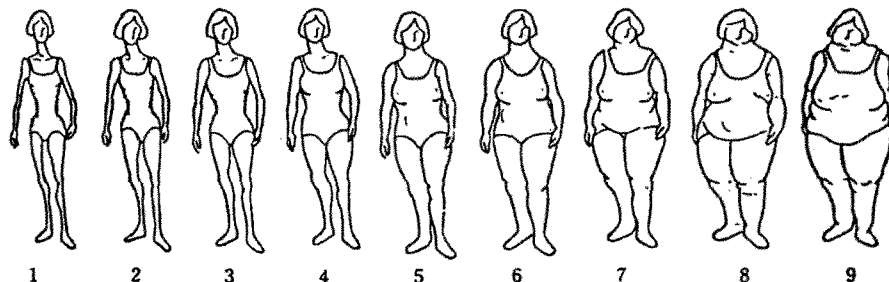
1985년 Fallon and Rozin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신체 실루엣 그림을 Kaiser(1990)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그림 2>의 체형실루엣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자신의 체형과 가장 유사한 실루엣 그림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실루엣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외모관리행동 측정도구

외모관리행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인 미용성형욕구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외모관리로 구분하여



<그림 1> 남자용 Silhouette Task



<그림 2> 여자용 Silhouette Task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미용성형욕구

선행연구(송경자, 김재숙, 2005)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의류학과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거쳐 최근 미용성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신체부위를 중심으로 5문항(나는 눈 성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코 성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이마 성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턱 혹은 얼굴윤곽 성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특정 신체부위 지방제거수술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을 선정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2) 일상적인 외모관리

의류학과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거쳐 대학생들이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주로 하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4문항(나는 헬스, 에어로빅 등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을 한다, 나는 드라이, 염색, 퍼머 등 머릿손질을 한다, 나는 거드랑이나 팔, 다리 면도를 한다, 나는 스킨, 로션 이상의 화장품을 사용한다)을 선정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3) 의복행동 측정도구

대학생의 의복행동으로 중요하게 제시되는 의복유행관심, 동조성, 과시성에 관련된 20문항을 선행연구(송경자, 2003; 이미숙, 2000)에서 발췌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SPSS 14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α 값을 조사한 결과 미용성형욕구 .78, 외모관리행동 .66, 의복행동 .84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4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α , 요인축소를 위한 요인분석,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 요인분석

의복행동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3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문항들의 누적 설명력은 54.29%였다.

제 1요인은 'TV나 영화를 볼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본다',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에 관한 기사를 흥미있게 본다' 등의 10문항으로 '의복유행관심'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설명력은 31.58%였다. 제 2요인은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 입기를 즐긴다', '나는 친구들이 흔히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등의 6문항으로 '동조성'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설명력은 15.86%였다. 제 3요인은 '나는 비록 시선을 끈다 해도 독특한 옷 입기를 즐긴다',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이면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한다' 등의 4문항으로 '과시성'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설명력은 6.85%였다.

2. 지각적 신체이미지

1) 유사체형과 이상적인 체형

제시된 체형 그림 중 자신과 가장 유사한 그림을 선택하게 하여 유사체형으로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체형 그림을 선택하게 하여 이상체형으로 한 후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남자는 자신과 가장 유사한 체형 그림으로 5번(27.2%)과 4번(25.1%), 3번(19.4%), 6번(16.8%) 그림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체형으로는 4번(53.9%)과 5번(35.1%) 그림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유사체형과 이상적인 체형이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유사한 피험자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자는 자신과 가장 유사한 체형으로 4번(50.9%)과 3번(25.8%) 그림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으나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체형으로는 대부분의 피험자가 3번(54.7%)과 2번(35.2%) 그림을 선택하였다. 50% 이상의 피험자가 유사체형으로 선택한 4번 체형을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피험자는 8.8%에 불과해 남자와 달리 유사체형과 이상적으로 여기는 체형이 일치하는 피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보다 좀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

<표 1> 의복행동 요인분석

요 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 설명력
의복 유행 관심	TV나 영화를 볼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본다	.81	6.31	31.58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에 관한 기사를 흥미있게 본다	.79		
	나는 옷을 꼭 사지 않더라도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76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76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있는가 하고 패션잡지를 자주 본다	.76		
	나는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76		
	마음에 안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68		
	나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67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60		
	나는 입어서 기분이 좋은 옷을 자주 입게 된다	.55		
동조성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 입기를 즐긴다	.79	3.18	47.44
	나는 친구들이 흔히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73		
	친구들이 새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마련하고 싶다	.72		
	모임에 갔을때 내 옷이 친구들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68		
	친구들과 같은 옷을 입었을때 더욱 그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67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59		
과시성	나는 비록 시선을 끈다 해도 독특한 옷 입기를 즐긴다	.77	1.37	54.29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이면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한다	.71		
	나는 평범한 옷은 개성이 없어 보여서 안 입는다.	.70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67		

*역코딩 문항

<표 2> 시각적 신체이미지의 유사체형 및 이상체형

(남자 N=190, 여자 N=160)

성 별	체형 그림	1 2 3 4 5 6 7 8 9									누적(%)
		1	2	3	4	5	6	7	8	9	
남 자	유사체형(%)	1.0	7.9	19.4	25.1	27.2	16.8	1.6	1.0	0	100
	이상체형(%)	0	1.0	9.9	53.9	35.1	0	0	0	0	100
여 자	유사체형(%)	1.3	9.4	25.8	50.9	10.1	2.5	0	0	0	100
	이상체형(%)	1.3	35.2	54.7	8.8	0	0	0	0	0	100

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송경자(1999)의 연구결과와 여자는 체중은 더 적게, 키는 더 크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김선희(2003), Jacobi and Cash(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극단적인 비만체형인 9번 그림은 유사체형으로도, 이상적인 체형으로도 선택되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체형선택에서 남자는 6번 이상, 여자는 5번 이상의 그림은 선택되지 않아 역시 여자의 경우에 좀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형 불만족

피험자의 체형 그림 선택에서 유사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 그림 선택이 일치하는 경우는 자신의 체형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유사체형이 이상체형보다 큰 번호인 경우는 비만이라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유사체형이 이상적인 체형보다 작은 번호인 경우는 말라서 불만족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불만족 유형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자신의 시각된 체형과 이상적

<표 3> 신체 불만족 유형

(남자 N=190, 여자 N=160)

성 별	불만족 유형	불만 없음(%)	비만 불만족(%)	말라서 불만족(%)	누 적(%)
남 자		19.9	44.5	35.6	100
여 자		15.1	76.7	8.2	100

인 체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남자가 19.9%, 여자가 15.1%로 비슷한 결과였으나, 현재 자신의 체형이 비만이어서 불만족 하는 경우는 남자가 44.5%, 여자가 76.7%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너무 말라서 불만족 하는 경우는 남자가 35.6%인 것에 비해 여자는 8.2%의 피험자만이 너무 말라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 여성 대부분이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더 적게, 키는 더 크고 싶어 하며 더 날씬해지기를 원한다는 김선희(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미디어에서 보여 지는 키 크고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미로 여기고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지각된 체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지각된 체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체형 그림 번호를 독립변인으로,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4>와 같이 외모관리행동의 미용성형욕구, 일상적 외모관리와 의복행동의 의복유형관심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극적 외모관리행동인 미용성형욕구는 비만체형인 7번 그림을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피험자보다 비교적 정상체형인 3번, 4번, 5번, 6번 그림을 자신의 체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피험자들이 미용성형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극단적으로 비만하거나 마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정상체형인 사람은 미용성형수술을 하면 자신의 외모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상적 외모관리도 비만체형인 7번 그림이 자신의 체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피험자보다 이상적인 체형으로 선호되었던 2번, 3번, 4번을 자신의 체형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피험자가 일상적 외모관리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날씬한 체형 가진 피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이나 헤어스타일, 화장 등을 통해 지금의 외모를 유지하거나 좀 더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교적 날씬한 체형인 사람은 적은 노력만으로도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행동에서는 의복유형관심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용성형욕구, 외모관리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유사한 체형으로 비만체형인 7번 그림을 선택한 피험자보다 2번, 3번, 4번, 5번 그림이 자신의 체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피험자들이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아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을 관심 있게 보며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고 패션잡지도 많이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유행에 대해 관심이 많

<표 4> 지각된 체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N=350)

지각된 체형		1	2	3	4	5	6	7	8	F 값
외모 관리 행동	미용성형욕구	2.00 ab	2.43 ab	3.21 b	3.32 b	3.11 b	2.98 b	1.00 a	1.50 ab	2.73**
	일상적 외모관리	4.33 bc	4.51 c	4.56 c	4.61 c	3.62 abc	3.61 abc	2.11 a	2.50 ab	4.61***
의복 행동	의복유행관심	4.10 bc	4.83 c	4.91 c	4.77 c	4.39 c	3.98 bc	2.47 a	2.80 ab	4.88***
	동조성	3.21 b	2.68 ab	2.89 b	2.93 b	2.99 b	2.62 ab	1.50 a	3.83 b	1.65
	과시성	3.25 ab	4.20 b	3.95 ab	3.75 ab	3.95 ab	3.80 ab	3.08 a	3.63 ab	1.97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제시된 값은 평균값임
표에 제시된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한 집단 구분임, a<b<c

고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는 시기가 빠르다는 송경자(1999), 하주연 외(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4. 신체 불만족 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신체 불만족 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 불만족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외모관리행동의 미용성형욕구, 일상적 외모관리, 의복행동의 동조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 불만족 유형에 따른 미용성형욕구는 말라서 불만족 하는 경우 미용성형에 대한 욕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이라서 불만족하는 경우 미용성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비만체형인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이므로,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미용성형욕구가 높다는 전경란, 이명희(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신체 불만족 유형에 따른 일상적 외모관리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보다 말랐다고 생각하는 피험자보다 자신의 체형을 비만이라고 여기거나 이상적인 체형과 지각된 체형이 일치하는 피험자가 일상적인 외모관리를 좀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소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헤어드라이의 사용, 염색, 퍼머 등의 머리손질을 하고 스킨이나 로션 이외의 화장품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 불만족 유형에 따른 의복행동은 동조성 요인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각된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이 일치하여 불만이 없는 피험자보다 불만이 있는 경우 동조성 점수가 높아 친구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친구들과 다른 옷을 입으면 어색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체형이 비만이거나 너무 말라 불만이 있는 경우 눈에 띄는 옷차림은 체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것이므로 동료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여 자신의 체형이 두드러지는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소 눈에 띄더라도 연예인의 옷차림 또는 명품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한다는 정미실, 이금실(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행동

1) 미용성형욕구에 따른 의복행동

미용성형욕구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용성형욕구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3집단으로 나누고 미용성형욕구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의복행동의 세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용성형욕구가 낮은 집단보다 보통 이상인 집단의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고 동조성과 과시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미용성형욕구가 큰 사람은 신체적 외모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적 손쉽게 신체적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많고 옷 구경하는 것을 즐기며 일상생활에서의 단조로움도 의복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또래집단과

<표 5> 신체 불만족 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N=350)

종속변인	불만족 유형	불만 없음	비만 불만족	말라서 불만족	F 값
외모관리행동	미용성형욕구	3.01b	3.46c	2.24a	19.91***
	일상적 외모관리	4.32b	4.54b	3.49a	11.67***
의복행동	의복유행관심	4.73a	4.64a	4.45a	1.04
	동조성	2.57a	2.94b	2.94b	3.12*
	과시성	3.88a	3.84a	3.91a	.19

*p<.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제시된 값은 평균값임
표에 제시된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한 집단 구분임, a<b<c

<표 6> 미용성형욕구에 따른 의복행동

(N=350)

종속변인	미용성형욕구	낮은 집단	보통집단	높은 집단	F 값
의복행동	의복유행관심	3.91a	4.60b	5.37c	27.71***
	동조성	2.51a	2.93b	3.11b	6.65**
	과시성	3.62a	3.88b	4.09b	5.93**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제시된 값은 평균값임
표에 제시된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한 집단 구분임, $a < b < c$

<표 7> 일상적 외모관리에 따른 의복행동

(N=350)

종속변인	일상적 외모관리	낮은 집단	보통집단	높은 집단	F 값
의복행동	의복유행관심	3.47a	4.68b	5.56c	55.59***
	동조성	2.66a	2.92a	2.93a	1.63
	과시성	3.48a	3.92b	4.08b	9.60***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제시된 값은 평균값임
표에 제시된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한 집단 구분임, $a < b < c$

비슷한 옷차림을 통해 현재 유행하는 옷을 입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만의 독특한 옷차림으로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일상적 외모관리에 따른 의복행동

일상적 외모관리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적 외모관리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3집단으로 나누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의복행동의 의복유행관심 요인, 과시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상적 외모관리점수가 높은 집단 즉, 평소에 외모관리를 좀 더 많이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운동, 머리손질, 화장품 사용을 더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예인의 옷차림도 관심 있게 보며 어떤 옷이 유행하는 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패션 잡지도 자주 보며, 남의 눈을 끄는 독특한 옷차림을 즐기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외모와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한다는 김광경 외(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의복이 손쉽게 변화를 줄 수 있고 가시성이 매우 커서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에 적절한 도구이기 때문에 평소에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의복을 활용하고자 유행 의복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의복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성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성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의 미용성형욕구, 일상적 외모관리와 의복행동의 의복유행관심, 과시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의 미용성형욕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점수가 높아 여자가 미용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며, 일상적 외모관리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점수가 높아 일상생활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일상생활에서 헤어드라이의 사용, 염색, 퍼머 등의 머리손질과 화장품 사용 등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의 의복유행관심 요인과 과시성 요인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점수가 높아 평소에도 여자들은 옷 구경하는 것을 즐기고, 일상생활에서의 단조로움도 의복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하며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보고, 남의 눈을 끄는 독특한 옷차림을 즐기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성형욕구가 크고 일상생활에서 외모관리를 많이

<표 8>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

(남자 N=190, 여자 N=160)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t 값
외모관리행동	미용성형욕구	남 자	2.49	1.43	8.93***
		여 자	3.83	1.36	
	일상적 외모관리	남 자	3.11	1.15	-20.32***
		여 자	5.63	1.16	
의복행동	의복유행관심	남 자	4.15	1.30	-7.98***
		여 자	5.15	.98	
	동조성	남 자	2.78	1.12	-1.16
		여 자	2.30	.97	
	과시성	남 자	3.82	.89	2.08*
		여 자	3.92	.76	

* $p<.05$, *** $p<.001$

하며 유행의복에도 관심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개성있는 옷차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적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을 측정하고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행동의 차이와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행동의 요인분석결과 의복유행관심 요인, 동조성 요인, 과시성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다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자신의 체형이 비만이어서 불만족하는 피험자도 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자신을 극단적으로 마른 체형이나 비만체형으로 지각하는 피험자보다 비교적 정상체형으로 지각하는 피험자가 미용성형욕구가 더 크며 일상생활에서 외모관리를 더 많이 하고 의복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신의 체형이 비만이어서 불만족하는 피험자의 성형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체형이 팔라서 불만족하는 피험자가 일상적인 외모관리를 적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체형이 마르거나 비만이어서 불만족하는 피험자가 의복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성형욕구가 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외모관리를 많이 하며, 의복유행관심과 동조성이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상생활에서 외모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유행에 관심이 많고 동조성, 과시성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남자보다 여자가 성형욕구가 크고 일상생활에서 외모관리를 많이 하며 의복유행에 관심이 많고 의복과시성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중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도구의 하나인 Fallon and Rozin (Kaiser에서 재인용, 1990)의 Silhouette Task를 시험한 것은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패션 업체는 물론 미용성형 관련 의료 분야와 화장품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용품 업체의 마케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피험자 수가 많지 않았고 거주지 또한 편협되게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를 시험할 것을 제안하며, 자신의 신체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며 좀 더 다양한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을 알아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욕구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99-108.
- 배재영, 서상원, 장충현, 신영철, 방석찬. (2004). 미용성형수술이 불안, 우울 및 사회적 불만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성형외과학회지*, 31(4), 520-525.
- 송경자. (1999).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 영향: 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자. (2003). *Spider-gram*을 이용한 신체이미지 측정 및 평가 여성의 미용성형 욕구·자아개념·의복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경자, 김제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미용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 안기영, 장재훈, 박대환, 신임희. (2005).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대학신입생들의 인지도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32(2), 161-167.
- 원창훈, 강동희, 구상환, 박승하. (2004). 한국 대학생들의 미용수술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10(2), 51-58.
-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정. (2007).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성역할 정체성과 의복 추구혜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4), 551-562.
- 장충현, 조민수, 서상원, 홍윤기, 오갑성. (2005). 미용성형외과 인지도에 관한 연구 (II).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11(2), 218-224.
- 전경란, 이명희. (2003).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6), 643-653.
- 정미실, 이금실. (2007). 미용성형욕구,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7), 131-140.
- 조윤주, 이정란. (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 지경환, 이상익. (200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0(4), 559-568.
- 하정희, 송영선. (2005).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수술 전·후 신체상 및 삶의 만족도. *간호과학*, 17(1), 59-69.
-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욕구. *한국의류학회지*, 29(5), 715-726.
- 홍병숙, 백인선, 이은진, 박성희. (2007). 미디어 및 외모관심도가 직장인의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1(4), 3624-3632.
-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New York: Pergamon Press.
- Davis, J., & Oswalt, R. (1992). Social influences on a thinner body size in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4, 697-698.
- Jacobi, L., & Cash, T. F.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